

# '함께 그리는 따뜻한 미래'

### 도교육청, 2023 교육가족 공모전... 30일부터 동시·숏폼 영상 분야 신청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 교육가족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그리는 따뜻한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교육주체 간의 소통과 배려 문화 확산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이다.

공모 분야는 동시(초등학생)와 숏폼 영상(중·고등학생, 교직원)이다.

10월 30일부터 11월 17일까지 도내 학생 및 교직원(교육공무직 포함)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 방법은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

수하면 된다.

동시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신해 담임교사나 학부모가 대리 접수할 수 있으며, 숏폼 영상은 개인 및 단체(5인 이하) 접수도 가능하다.

1인 1작품만 응모 가능하며, 2작품 이상 등록시에는 먼저 등록된 1작품만 심사 대상이 된다.

시상은 각 분야별로 대상 1편, 최우수상 3편, 우수상 동시 10편·숏폼 영상 10편(중·고등학생 및 교직원 각각 5편씩), 장려상 동시 16편·숏폼 영상 각각 15편씩 총 78편을 선정한다.

수상자는 11월 28일 발표할 예정이

며, 수상자에게는 교육감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전북교육소식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되고, 도교육청의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www.je.go.kr) 홈페이지 또는 공모전 담당자(063-239-3135)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성하 대변인은 "교육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전을 통해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참신한 콘텐츠 발굴로 전북교육정책 홍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실감미디어로 전주국제영화제 알리다

### 전주대 재학생들, '메타버스로 만나는 영화·영상의 도시 전주' 제작·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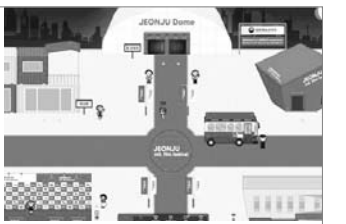
전주대학교 실감미디어혁신융합대학(단장 한동승)은 전주국제영화제와 협력해 가상공간을 제작하여 전주국제영화제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송수원(역사콘텐츠학과 3년)과 김보경(관광경영학과 4년) 학생은 2022년 사업단 지원 강의의 과제로 전주국제영화제를 메타버스 ZEP으로 제작했다. 메타버스에는 영화제의 역사, 역대 포스터, 굿즈, 포토존, 전시관 그리고 전도상장과 전주영화 같은 전주의 유명어의 환영지의 가상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

담당 교수인 이정욱 교수(역사콘텐츠학과)는 이러한 내용으로 학생들의 과제가 진행되고 있음을 전하며, 전주국제영화제 홍보 담당자에게 알렸고, 이후 10개월 동안 영화제 관객 서비스팀과 학생들의 공동작업으로 완성했다.

한편 '메타버스로 만나는 영화·영상 도시 JEONJU'를 목표로 한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씨네투어 X 산책'과 연계해 26~31일 온라인을 통해 콘텐츠 체험을 진행한다.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송수원 학생은 "코로나 시작과 함께 입학한 대학 생활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실감미디어혁신융합대학 사업단에서 개설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실감 콘텐츠 제작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며 "내가 만든 콘텐츠가 세계 영화인들에게,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를 알리는 데 활용돼 너무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욱 교수는 "이러한 콘텐츠 체험은 영화와 실감미디어 기술을 결합해 지역 사회와 영화인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려는 학생들의 노력"이면서 "미래형 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는 '2023 푸드테크 진로이름 프로그램 성과발표대회'에서 '미니언즈' (사진 왼쪽)팀이 대상을 '충고' (사진 오른쪽)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전했다.

## 푸드테크 진로이름 프로그램 발표 우수 성과

###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미니언즈' 대상·'충고' 최우수상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김용재)는 2023 푸드테크 진로이름 프로그램 성과발표대회에서 미니언즈 팀이 대상을, 충고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전했다.

이 대회는 식품·외식 분야의 인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7회째다.

이번 성과발표대회는 전국의 중·고등학생 총 24개 팀이 아이디어를 출

품, 심사를 통해 20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문제 인식·문제 해결·독창성·기술성·미래 파괴력을 평가해 중등부와 고등부 각각 3개 팀을 선정했다.

이에 고등부 대상을 수상한 미니언즈 팀(지도교사 윤보영)은 바나나칩질을 동결 건조시켜 가공한 배스밥(입욕제)과 고체 치약을 제안했다.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제품을 개발하는 등 실현가능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충고' 팀(지도교사 윤보영)은 굼벵이 원액을 활용한 앰플 및 트리트리트를 제안했다. 미래식품 유증을 해어 용품과 접목하여 시제품을 개발해 고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용재 교장은 "식품·바이오 의약품·폴질관리 전문 실무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식품과 학생이 성과를 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와 ICC 공동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단장 최승환)은 지난 23~25일 3일간 제주관광대학교와 공동으로 드론·영상·콘텐츠 산업 기업협업센터(ICC) 공동교육프로그램 및 4IR(4차산업혁명) 특화교육프로그램(드론 이론 및 활용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2년 체결한 대학 간 산학협력 공유·협업을 위한 ICC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ICC 산학분야 및 신산업분야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4차산업혁명 시대 드론 산업의 인재 양성을 위한 드론의 이론 및 응용분야 드론 수리, 드론 조종, 드론 관련 스포츠 등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전공 관련 산업체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한 신산업체 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특히, 전주비전대학교는 2018년부터 드론을 활용한 영상촬영 및 편집 기술을 적용한 각종 미디어 산업, 3D모델링 기술을 적용한 지적정보 관련 산업, 드론 축구 등 드론 활용 교육 프로그램 방재드론 전문가 육성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드론 산업 관련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지역 드론 관련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 '영재교육으로 더 큰 꿈 키워요'

### 전북도교육청, 12월 전형 영재교육대상자 1669명 모집

#### 내달 7일부터 14일까지 원서접수... 12월 2일 영재성검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영재교육기관 27곳에서 1,849명을 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은 올해 12월을 시작으로 2024년 3월, 4월, 7월까지 총 4회로 나눠 뽑는다.

이 중 가장 많은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12월 전형은 14개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을 비롯해 21개 영재교육원, 그리고 2개 영재교육원에서 총 1,66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12월 전형을 치르는 전라북도교육감 승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대상자 지원은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 선발시스템(https://ged.ked.tn.kr/scr/sellindex.do)을 통해 11월 7~1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후 전공 실기와 심층면접은 영재교육기관별로 일정을 확인해야 하며, 12월 전형을 치르는 기관의 모집요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내년 3월에는 영재학급(전주화정초·영선중), 4월 전북꿈틀움사이버 영재교육원, 7월 전북대학교이공대학 영재교육원에서 각각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영재교육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미래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내실있는 영재교육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초·중학교 영재교육 업무담당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은성 기자

## 소방안전·드론 분야 글로벌 창업·학과 개설 협력

### 전주대, 몽골민족대와 글로벌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박진배 총장)는 25일 본교에서 몽골민족대학교(이사장 몽크 바트)와 글로벌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 몽골 재난·방재청 역할 강화교육 후 몽골대학교 내 드론 등 첨단기술 분야 학과 발전 협력 및 교원 창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 24일 드론·방재 분야 창업기업인 (슈아이팜(김동현 대표), 전주대 LINC 3.0 사업단(단장 김상진) 등도 방문에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

기도 했다.

박진배 총장은 "드론 방재 분야를 선도하는 우리 대학이 몽골민족대학교와의 글로벌 협력을 통해 드론 및 첨단 기술 연구, 인재 양성 등에서 한층 더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며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우수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몽골민족대학교(MNU)는 1998년에 설립돼 현재 9개 단과대학, 53개 학과, 약 14,000명의 학생 및 700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22년에는



400개 병상 규모의 몽골민족대학교병원(병원장 Dr. L. Munkhtulga)을 개원해 운영 중이다. /정은성 기자

### 뉴노멀 시대 선도 4차 산업혁명 기반 졸업작품 전시

### 전주비전대, 26~27일 '비전엑스포' 개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26~27일 이틀간 대학 내 문화체육관에서 '2023 비전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뉴노멀 시대'를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졸업작품전으로 꾸러진다. 이 행사는 내년 2월 졸업예정자들의 졸업작품 전시를 비롯해 학술발표회, 학과별 성과 전시, 태권도 공연, 뷰티 페스타 등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2023 VISION EXPO'에는 총 143개 작품이 전시되는데 지난 9월 20일 심사를 거친 작품들을 비롯해 지역산업체와 연계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수상작에는 특허청장상, 새만금개발청장상, 전북도지사상, 전북교육감상 등을 수여한다. 뿐만 아니라 졸업을 앞둔 재학생들이 학업기간 동안 캠퍼스디자인에 기반해 갖고 싶은 창의적 사고와 기술역량을 유감없이 선보인다.

특히, 이번 졸업작품전에서 특허청장상을 받은 작품은 컴퓨터 정보과 어시스트팀이 출품한 '홀로렌즈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 실종자 인식 시스템'이다.

이근상 산학협력단장은 "졸업작품 전시와 주요 기관장상 수상이 갖는 의미는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도 학생들이 대가업을 비롯한 우수 기업에 취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전주비전대학교 인사·교육·취업·지역 내 정부의 학생성공프로세스를 더욱 공고히 해 경쟁력을 갖춘 실무형 기술인재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농생대, 베트남 빈 대학 농업대학과 '맞손'

### 농업기술 발전 공동 연구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백승우)은 25일 베트남 빈(Vinh)대학 농업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백승우 학장과 트란 바티엔(Tran Ba Tien) 빈 대학 농업대학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수행과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한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교환학생 등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백승우 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대 농생대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 인프라를 공유하는 등 양 대학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필요로 하는 동남아 국가의 대학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우리 전북대가 글로벌 허브 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 7.9대 1 기록

### 도교육청, 2024학년도 원서접수 마감 결과 402명 모집에 2907명 지원... 내달 25일 1차시험

2024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일반) 평균 경쟁률이 7.9대 1을 기록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6~20일까지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402명 모집에 2907명이 지원해 평균 7.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일반시험은 367명에 2,892명이며, 장애인 구분 선발은 35명에 15명이 각각 응시했다.

일반모집 기준으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과목은 한문으로 3명 모집에 43명이 지원해 14.3배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 음악 7명 모집에 95명이 응시해 13.6배 1, 역사 14명 모집에 189명이 지원해 13.5배 1, 국어 16명 모집에 214명이 지원해 13.4배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과목은 식품공으로 4명 선발에 14명이 지원해 3.5대 1, 정보컴퓨터는 3명 선발에 13명이 지원해 4.3배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사립학교법인 1차시험 위탁 선발에는 34개 법인에서 24과목 153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총 604명이 응시했다.

제1차 필기시험은 오는 11월 25일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는 12월 28일에, 최종합격자 발표는 2024년 2월 8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교육소식)시험/채용/구직/중등임용시험 게시판 및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